

고등학교 현장의 현대시 교수-학습 고찰

강 영 기*

차 례

1. 서론
2.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현대시 교수-학습의 지향점
 - 3.1. '왜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과 문학문화
 - 3.2. '무엇을 가르칠까'의 고민과 시 교육의 대상
 - 3.3. '어떻게 가르칠까'의 고민과 시 교육의 방법
4.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대시 교수-학습 활동의 구안
 - 4.1. 단원의 개관
 - 4.2. 교수-학습 활동의 설계
 - 4.3. 교수-학습 활동의 전개
 - 4.4. 교수-학습 활동의 평가
5. 고등학교 현장의 현대시 교수-학습의 의미
6. 결론

1. 서론

근대 학교 교육에서 현대시 교육의 출발은 시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를 가르치

* 제주대학교 박사, kee49@naver.com

는 교사의 역량에 의해 학습자의 해석 능력이 길러진다. 따라서 교수-학습에서 학습자가 지닌 감수성 혹은 시 작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의한 시에 대한 감상이나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 교육 혹은 시 감상 능력에 의해 학습자의 감상과 이해는 이루어진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앞에서 제시한 현상에 대한 시 교수-학습에 대한 반성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결과론적 상황에 맞물릴 때 시 교수-학습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시 교수-학습에서 상황의 편의를 위해 “화자”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를 찾기 위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시 교수-학습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현대시 교수-학습에 대해 논의는 김인환, 윤여탁 외 3인, 권혁준, 이상구, 차호일, 강영기의 논의가 있다.

김인환은 『문학교육론』에서 “시 교육은 교사의 박식과 재능을 과시하는 시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시급한 과제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학습자의 체험과 시의 체험을 연관시키고 있다. 즉, 시의 교육은 시인의 체험과 시 작품에 담긴 체험과 학습자의 체험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¹⁾임을 강조한다.

윤여탁 외 3인 공저의 『현대시 교육론』에서는 문학 교수-학습 방법을 현대시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현대시 교수-학습에서의 유의 사항,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고려해야 할 방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시 교수-학습의 유의점으로 ‘성취 기준, 학습 목표 중심의 시 지도’, ‘지식 전달 중심이 아니라 시적 사유의 발견으로서의 교수-학습 지향’, ‘시 형식과 의미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는 시 교수-학습 지향’, ‘독자 중심 시 교수-학습의 중요성’을 논의²⁾하고 있다.

1) 김인환, 『시교육론』 『문학교육론』(한국학술정보(주), 2006), 57~78쪽.

2) 윤여탁 외 3인 공저, 『현대시 교수-학습』 『현대시 교육론』(사회평론, 2010), 164~201쪽.

권혁준의 연구³⁾는 시 교수-학습시 교사의 텍스트 해석 관점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수-방법을 지적하면서 독자 반응 이론과의 상호 보완을 제시한다. 또한, 이상구의 연구⁴⁾는 학습자 중심 문학 수업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이 속에서 학습자의 수준별 활동을 강조한다. 한편, 두 논의와 다르게 차호일의 연구⁵⁾는 시교육의 변화 관점에서 텍스트 중심의 시교육, 학습자 중심의 시교육, 상황 중심의 시교육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그는 이 속에서 시교육의 관점 변화와 그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한다.

강영기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 고찰」에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한다. 그것은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의 평가에 이야기한다. 이 속에서 그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은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⁶⁾고 밝힌다.

201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국어과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를 사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대시에 대한 교수-학습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전개될 시를 포함한 문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개되어야 할 현대시 교수-학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구안할 수 있는 현대시 교수-학습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현대시를 교수-학습하면서 시의 형상적 요건들에 대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내용을 시 작품

3) 권혁준, 「문학비평 이론의 시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7.

4)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8.

5) 차호일, 「시교육의 관점 변화 및 지향점」, 『청람어문교육』 30집, 2004.

6) 강영기, 「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 고찰」, 『영주어문』 제15집, 영주어문학회, 2008, 221~232쪽.

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할 수 있는 현대시 교수-학습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문학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을 문학 교육의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문학 교육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라 할지라도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이 시작된 광복 이후의 교육수요 목기부터 줄곧 문학 작품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왔고, 이로 인해 문학 작품은 국어교육의 중요한 부분⁷⁾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나타난다. 여기서는 현대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사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교수자인 교사적 측면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볼 때 국어 교사는 있지만, 문학 교사는 없다. 즉, 현대시를 지도하는 교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어 교사가 현대시를 지도하는 교사이다. 이러한 점은 교수자에 해당하는 교사의 자질적 측면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만약 현대시 혹은 문학에 대한 관심 있거나 문학을 전공한 교사인 경우에는 비평가 수준의 교수자가 되어 문학 작품에 대

7)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167쪽.

8) 시를 가르치는 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의는 김은전의 논의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에 관한 이론 무장의 결여. 아시다시피 대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강좌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학 전공자는 문학 강좌를 외면하고도 졸업할 수 있다. 또 고전 문학에 뜻을 둔 학생, 현대 문학 쪽이라도 소설에 더 비중을 둔 학생은 시론 강의를 듣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류의 대학 졸업자들은 국문과나 국어교육과 출신자라 하더라도 시에 관한 이론에는 까막눈이다. [김은전, 『시교육의 성격과 목표』, 『현대시교육론』, 시와 시학사, 1996, 15쪽.]

한 학습자의 이해와 감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용 지도서에 의존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은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문법 단원의 경우 문법 지식과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칠 수 있는 교수 방법만으로도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유는 시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교수-학습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시 교수-학습의 내용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감상의 주체 측면의 문제, 평가 영역에 따른 교수-학습의 내용 유형화의 문제이다.

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 작품에 대한 교수-학습에서 이해와 감상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시 교육의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라면 그 주체는 학습자 즉 학생이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시 교수-학습은 교사 중심에 의한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도 일어나지 않으며, 학생들 상호간의 상호 작용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시 교수-학습은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으며, 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주체가 바뀐 교수-학습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식전달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은 시를 세밀하게 쪼개고 분석하되 그 활동조차도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 의한 기계적인 분석적 읽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지식들이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나 원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 지식의 주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국 현대시 교수-학습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춘 교수-학습 내용 역시 학습자가 지닌 시 감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중 시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3개의 작품과 이와 관련한 4개의 문항이 출제된다. 그런데, 출제되는 문항의 유형이 거의 고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대시 교수-학습 역시 여기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대학수학능력 언어 영역에 출제되는 현대시 문항의 유형 및 문두 유형이다.

1. 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유형과 문두 유형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1 수능, 2010 수능)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2011 수능)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0 수능)
2.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 추리하기 유형과 문두 유형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 수능)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0 수능)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09 수능)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8 수능)
3.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하기 유형과 문두 유형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2005 수능)
(다)의 ㉠과 시적 정조가 가장 가까운 것은?(2003 수능)
4.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유형과 문두 유형
<A>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1 수능, 2010수능)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1 수능)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09 수능)
5.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유형 및 문두 유형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 수능, 2010수능)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0수능)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수능)

첫째 유형은 '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유형'이다. 원래 이 유형의 출제 목적은 지문에 선정된 작품들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견주면서 감상하게 함으로써 운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함에 있다. 하지만, 교사는 교수-학습에서 시의 구성요소에 의미를 두어 수업을 진행한다. 그것은 시에 나타난 주제 의식,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어조 분위기, 전개 방식, 표현상의 특징 등을 교수-학습에서 밝히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에게 평소 작품을 읽을 때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반응을 점검하면서 시를 감상할 것을 요구한다. 즉, '화자는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에 대한 감상을 이끌어 낸다. 또한 교사는 이런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 내용이 같은 답지가 순환되면서 출제되고 있으니 응용 학습을 할 때마다 답지의 뜻을 정리하도록 학습자에게 요구한다.

둘째 유형은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 추리하기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특정시어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시 감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다. 하지만, 교사는 이 유형의 쉬운 해결을 위해 학습자에게 시적 화자의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문맥 검토를 토대로 시어의 속성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유형은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하기'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일차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시적 화자의 반응을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유형이다.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묻는 문제는 각각의 시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표현 방식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측정함에 그 의미를 둔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사는 교수-학습에서 비유, 상징, 역설, 반어 등의 표현 기교와 시상 전개 방법, 운율을 드러내

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정리하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마지막 유형은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유형이다. 감상의 적절성 평가란 내용이나 형식적 측면에서 시 속에 나타난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 특정 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타당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교수-학습에서 지문으로 선택된 시에 대해 학습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나 선입견, 배경 지식 등을 배제하고 단지 문항에 보기로 주어진 관점에서 작품을 읽도록 학습자에게 주문한다.

이처럼 고등학교 현장에서 현대시 교육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서 출제되는 유형에 맞추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수의 내용 역시 유형화된 내용을 학습자에게 알려주고 익히게 한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춘 교수-학습은 교사에게 문제 유형에 맞추어 시를 획일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습자인 학생 역시 수능 출제 유형에 맞게 학습하다 보니 자신이 지닌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통한 시 감상이 어렵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현대시 교수-학습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은 교사적 측면, 감상의 주체 측면, 평가 영역에 따른 교수-학습의 내용 유형화이다.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교사는 텍스트에 대한 지식이나 작품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감상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한 명의 독자로서 학습자들 앞에 나서는 것이며, 체험 과정에서 학습자들과 정서적·상상적으로 교류⁹⁾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현대시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문학교육과정 목표¹⁰⁾에도 도달할 수 있다.

9) 윤여탁 외 3인 공저,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0, 134쪽.

10) 2007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학교육과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3. 현대시 교수-학습의 지향점

문학 교육은 그에 따른 이념 수립, 과제 마련, 교재 선정 등 대규모의 거시적 계획에서부터 개별 단위 수업의 미시적 계획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고도 중층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문학 교육의 범주는 문학 작품에 대한 교수와 학습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심미적인 글을 씀으로서 문학을 생산하는 활동(창작), 그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활동(감상),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활동(내면화)등을 중심으로 문학에 대한 실질적인 교수와 학습¹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대시 교육 역시 앞에서 언급한 문학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시의 수용과 감상은 교실에서 직접 읽고, 읽은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토론한 결과를 글로 써서 창작으로 환원할 때 현대시 교육이 지닌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현대시 교수-학습이다.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교사는 크게 '왜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수-학습은 결국 문학 교육 혹은 현대시 교육의 목표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시 교수-학습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왜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과 문학문화

현대시 교수-학습에 앞서 교사는 '현대시를 왜 가르칠까?'에 대해 고민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나.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1) 유성호, 『현대시 교육론』, 역락, 2006, 15쪽.

한다. 그 고민은 문학(현대시)이 인류 지성의 총아이므로 인문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학을 읽어야 한다는 이념적 차원과 문학이 입시에서 비중이 크므로 반드시 문학을 배워야만 고득점을 얻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문학(현대시)교육의 현실적 차원¹²⁾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원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은 이상이면서 또한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시 교육도 그렇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론적 차원의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에 나타나는 혹은 시에 나타나는 문화적 맥락의 차원에서 '왜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은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시 교육은 시인의 체험과 시 작품에 담긴 체험 그리고 학습자의 체험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용어가 '문학문화'이다. 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문학과 문화'영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네 개의 하위 항목을 두어 세부 내용을 기술하였다.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을 문화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문학이라는 제도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보겠다는 관점이며, 나아가 인접 예술 및 매체 등과 문학을 묶어서 문화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보여준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의 '문화로서의 문학'관에 그치지 않고, 문학교육을 넓은 의미의 문화교육 범주 안에 위치시키면서 문학교육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¹³⁾ 한편, 2007 국어 과목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에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문학 작품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 사고 방식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인물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품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문학 작품에 나타난 창작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 역시 2007 국어 과목에 나타나는 내용요소이다. 따라서 교수-학습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작품이 사회·문화적 상황의 산물임을 이해해야 하며, 작가의 창

12) 김중신,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5쪽.

13) 김창원, 『문학교육론-제도화와 탈제도화』, 한국문화사, 2011, 60쪽.

작 동기와 의도를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추론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작품의 창작 의도와 사회·문화적 상황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아내는 문화의 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음성과 문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고, 사회·문화의 다른 영역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정신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특징이 규정된다. 그리고 문화의 결정체라고 일컬어지는 문학을 왜 가르쳐져야 하는가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그것을 가르치는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또 이런 배경이 일치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문학을 포함하는 전 문화의 본질과 속성, 작용의 원리를 제대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¹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사는 교수-학습을 통해 현대시를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3.2. '무엇을 가르칠까'의 고민과 시 교육의 대상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 분명 교수-학습의 과정을 진행할 때 주된 내용이 되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은 현대시 교육의 대상이 된다. 시 교육의 대상은 시적인 것을 당대의 문화 지평에서 인지하고 해석하여 현재적 경험으로 수용하는 과정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시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말의 뜻의 변형 과정에 대한 이해력도 중요하며, 상호텍스트성이나 문화에 대한 사전 능력도 필요¹⁵⁾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시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시적 상상력과 시어의 변화 과정, 문화와의 연결 등을 가르쳐야 하는 걸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가르칠 시는 분명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시이며,

14) 윤여탁, 『현대시 교육론-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태학사, 1996, 41쪽.

15) 유성호, 앞의 책, 24쪽.

이러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시에다 앞에서 언급한 요소와 관련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시는 어떤 시인가? 그것은 교수-학습의 내용이 이해와 활동이라고 할 때, 이해를 통해 교육 내용이 구현되는 시와 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시가 된다. 즉, 실체로서의 문학(시)과 문학(시)의 속성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이해'를 통해 그 교육 내용이 구현되는 경우이다. 이 속에는 감상과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용도 포함된다. 활동으로서의 문학(시)에 대해 안다는 것은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 내용 자체가 그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를 상상력의 발현으로 볼 경우,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를 써 보는 식의 활동이 교육 내용¹⁶⁾이 된다.

시 교육의 대상은 시의 이해의 측면과 활동의 측면 그리고 내용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시의 이해는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식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문학사적 지식, 문학이론, 문학의 존재 방식과 기능 등에 대한 가능한 '모든' 이해를 포괄¹⁷⁾한다. 물론 이 속에는 감상과 수용이 포함된다. 한편, 활동의 측면은 학습자가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시를 '사상과 감정을 상상력을 통하여 언어로 나타낸 예술'이라고 할 때 시 교육의 대상은 상상력을 통하여 시를 쓰는 창작의 활동이 된다. 시 내용의 측면을 고려한 시 교육의 대상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아내고 또한 그것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의 시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의 문제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문학사적 지식, 문학이론, 문학의 존재 방식과 기능 등에 대해 이해 및 감상이 가능한 시 그리고 학습자가 수용 가능한 시, 학습자가 지닌 상상력을 표현한 시 쓰기 활동,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된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

16) 김은전 외 17인 공저,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정정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시」, 월인, 2003, 307쪽.

17) 정정순, 위의 책, 309쪽.

아닌 시가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즉,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시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 시는 '가르칠 수 있고' 동시에 '유용 가능한' 내용을 지니면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학습자가 충분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가. 둘째, 교수-학습의 제재를 주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셋째, 우리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가. 넷째, 학습자가 시 작품의 감상과 재구성 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3.3. '어떻게 가르칠까'의 고민과 시 교육의 방법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수용은 학습자가 학습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통해 내적 재구성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수용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 고민한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수용의 관점을 기준으로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첫째, '지식=수용'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시에 나타난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교사는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하면 수용이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 교수-학습에서는 대상 시에 나타난 의의, 시인의 인생 등 대상 시에 나타나는 개념과 지식을 가르친다.

둘째, '분석=수용'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텍스트의 운율, 이미지, 어조 등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수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교수-학습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텍스트 분석 및 시가 지닌 운율, 표현기법 등을 학습시킨다. 분석된 내용을 학습자에게 가르친다.

셋째, '반응=수용'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교사와 학습자가 독자와 같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이다. 따라서 대상 시에 대한 의미는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고 여긴다. 그 이유는 학습자마다

각자가 지닌 경험과 감상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상 시는 하나의 텍스트이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는 교수-학습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다양한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현대시 교수-학습은 학교 현장에서 '수용'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교사는 일방적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 작품을 개방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으로 사회화하며 창조로 변형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매개자란 문학 담당 교사가 작품을 분석, 종합하여 파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학생들이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¹⁸⁾ 그러므로 교사는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의 문학적 능력을 도와주기 위한 안내자가 된다. 물론, 문학적 감수성이 미성숙한 학생이 제대로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를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 본다면 학습자는 주어진 텍스트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독자 개인의 삶을 기초로 다양한 해석을 한다는 관점을 보면 반론에 대한 해답이 된다.

4.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대시 교수-학습 활동의 구안

2011학년도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는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새로운 교과서로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이전 학년의 경우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인데 비해 현재 1학년의 경우는 검인정 교과서¹⁹⁾로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18) 윤재열, 『문학 교육 방법론 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2001, p. 22.

19)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 획일적인 교과서 체제 탈피, 자유경쟁을 통한 교과서 질 향상, 단일학교에 교과서 선택권 부여, 다양한 교사, 전문가 집단의 교과서 집필 참여 가능 등 장점이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미숙한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 이념적 갈등, 교육적 혼란 초래 가능성, 교과서 발행비 증가, 교과서 검정 제도의 미비로 양질의 교과서 편찬 및 채택 상 한계 노출을 들 수 있다. [윤여탁 외 3인 공저,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0, 134쪽.]

는 비상 교과서에서 나온 국어(상) 교과서의 현대시를 제재로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하기로 한다.

4.1. 단원의 개관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전문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 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 신동엽, 「산에 언덕에」 전문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대상 시는 소단원 (2)에 수록된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와 신동엽의 「산에 언덕에」이다. 먼저 이 두 작품²⁰⁾을 선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쉽게 씌어진 시」와 「산에 언덕에」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쉽게 씌어진 시」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있고, 「산에 언덕에」는 4·19혁명 당시에 산화한 이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이 소단원은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학생들의 삶의 맥락에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학의 효용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문학의 개인적 효용이나 사회적 효용은 무관한 것이 아니어서 둘 중 어느 하나도 경시할 수 없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의 생활 속에서 문학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문학의 개인적인 효용에서 시작하여 사회적인 효용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학습 내용을 전개하였다.²¹⁾

단원 설정의 이유는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학생들의 삶의 맥락에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문장 속에는 단원 설정의 의도가 있다. 그것은 문학의 효용성을 학생의 삶에서 찾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학습을 통해 문학의 개인적인 효용에서 시작하여 사회적인 효용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학습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학 효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쓰인 당대의 사회·문화·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학습에서 소단원으로 선정한 현대시 두 편을 통해 학습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글을 써보게 함으로써 문학 작품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시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문학 작품이 주는 사회적 효용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화자의 상황을 떠올려 보고, 그 상황에 처한 화자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속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표현 활동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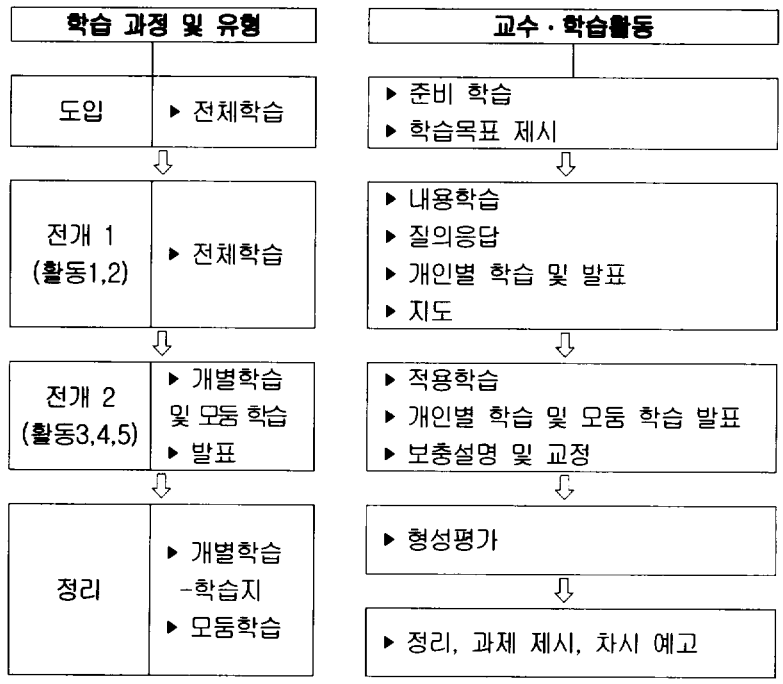
4.2. 교수-학습 활동의 설계

대상 시에 대해 진행하는 현대시 교수-학습 활동은 크게 ‘도입-전개1-

21) 한철우 외 11인, 『비상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2』, 비상교육, 2011, 75쪽.

전개2-정리'의 과정이다. 이 속에서 학습자의 학습 유형은 전체 학습과 개별 학습 그리고 모둠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학습이 실시되는 과정은 '도입'과 '전개1'이다. '전개2'에서는 개별 학습과 모둠 학습이 실시된다. 한편, '정리' 과정에서는 개별 학습 및 모둠 학습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을 마무리한다.

교수-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도입' 과정에서는 준비 학습 및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전개1' 과정에서는 내용 학습 및 이에 따른 질의 응답, 개인별 학습 및 발표, 교사의 지도가 이루어진다. 한편, '전개2'는 개별 학습 및 모둠 학습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적용 학습, 개인별 학습 및 모둠 학습 내용 발표, 보충설명 및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과정에서는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교수-학습 활동 설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3. 교수-학습 활동의 전개

대상 시에 대한 교수-학습의 목표는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10-문학-(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학습 목표는 ‘1. 문학 작품 감상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알 수 있다.’와 ‘대상 시를 감상하고, 문학 작품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대상 시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문학의 효용에 대해 이해하기, 작품 읽기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에 토론하기,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하기’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안하기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발문을 학습자에게 할 수 있다.

교사: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교사는 학습자 개인마다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 개인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어서 얻는 이득이나 이익, 사회 구성원들이 문학 작품을 읽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 교사는 교수-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세부 학습 목표인 ‘대상 시를 감상하고, 문학 작품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를 학습자가 해결 할 수 있도록 첫째, ‘시를 감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와 둘째 ‘대상 시는 시대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시는 사회나 인생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느껴지는 말로 압축적으로 나타낸 문학의 갈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에게 문학 작품은 작가가 처한 시대적·사회적 현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문학의 사회적 효용

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가 대상 시에 대한 학습 이전이기 때문에 대상 시의 시인인 '윤동주'와 '신동엽' 시인의 생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들이 각각 어떤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지 생각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대상 시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²²⁾의 형식으로 생성하게 해야 한다.

한편, 대상 시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은 크게 5개의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활동 1과 활동 2는 대상 시의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이며, 활동 3, 4, 5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대상 시 두 편의 내용을 확인할 때는 먼저 작품의 내재적인 의미에 주목하도록 하고,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문학의 사회적 효용을 이해하는 순서로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활동 1, 2를 통해서 시 작품에 대한 내용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활동 3, 4, 5를 통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제시한 내용은 대상 시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의 내용이다.

- 활동 1: '쉽게 씌어진 시'를 감상하고, 화자의 상황과 시의 전개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파악해 보자.
- 활동 2: '산에 언덕에'를 감상하고, 화자의 태도와 특징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를 생각해 보자.
- 활동 3: '쉽게 씌어진 시'와 '산에 언덕에'를 감상하고, 문학 작품이 개인의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활동 4: '쉽게 씌어진 시'와 '산에 언덕에'를 감상하고, 문학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자.
- 활동 5: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문학 작품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문학 작품 읽기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2)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학습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시기에 쓰여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시의 개인적, 사회적 효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쉽게 씌어진 시'는 정말 쉽게 씌어졌을까?

활동 1은 화자의 상황과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일제 강점기를 살다가 간 윤동주 시인의 고뇌와 사상을 비롯하여 화자의 상황과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을 세부적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것은 '1-1.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시어를 통해 짐작해 보고,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무엇 때문인지 말해 보자.', '1-2. 이 시에서 화자의 태도가 변한 부분을 찾아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해 보자.', '1-3. 이 시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시가 정말 쉽게 씌어진 시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이다.

1-1 활동의 경우 교사는 학습자에게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짐작해보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교사는 학습자에게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의 근원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2 활동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이 시의 전개 과정에서 화자가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부분을 찾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후 화자의 성찰과 반성이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부분을 찾고 그 의미를 파악했는지에 대해 발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1-3 활동을 통해서 교사는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시의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학습자가 생각하고 있는지 교수-학습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활동 2는 학습자가 화자의 태도와 특징적으로 사용된 표현을 통해 시의 주제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특징적인 표현의 의미와 효과를 생각하고, 시에 등장하는 '행인'의 태도에 주목하면서 주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2-1. 그리움의 대상에 대한 화자와 행인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2-2. 이 시의 주제와 특징적인 표현을 파악해 보고, 이 둘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적어 보자.' 등의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1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화자와 행인을 비교하여 화자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2-2 활동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특이한 어미와 반복되는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지도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가 대상 시에 쓰인 특이한 어미의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활동 3은 문학의 개인적인 효용을 학습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게 하는 활동이다. 분명 대상 시 두 편은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이지만, 교사는 학습자가 개인적 효용에 초점을 두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와 함께 '3-1. 쉽게 씌어진 시의 화자는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생각해 보고, 이 시가 자신의 삶에 주는 의미를 적어 보자.'와 '3-2.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시와 노래를 찾아보고, 이러한 정서의 시와 노래가 많이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라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1 활동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활동 1을 통해서 파악한 화자의 상황과 태도 변화를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 역시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과 연계시켜 이해해야 한다.

3-2 활동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움의 정서를 담은 시나 노래를 더 찾아보게 한다. 또한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교수-학습 활동 속에서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 4는 문학의 사회적 효용에 관한 활동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문학이 지니는 실천성과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교수-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 활동으로 '4-1. 두 시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과 시인의 삶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 구절의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4-2. 당대 사람들이 두 시를 읽고 시대나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했다면 어떻게 변하였을지 이야기해 보자.'를 들 수 있다.

4-1 활동에서 교사는 미리 모둠별로 각 작품이 창작된 배경을 조사해

오게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시에 나타난 특정한 구절에 대해 그 의미를 토의하게 하고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4-2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문학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두 작품이 표현한 내용이 현실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떤 문학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교수-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학습자는 이 활동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을 것인지에 대해 유추하여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 5는 문학 작품 읽기의 긍정적인 의미를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주체인 학습자가 직접, 간접적 경험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 외의 다른 작품을 떠올려 보게 하여 학습자의 삶에 문학 작품이 주는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 내게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5-1.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문학 작품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해 보자.', '5-2. 위 (1)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와 같은 활동을 학습자가 전개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4. 교수-학습 활동의 평가

대상 시에 대한 교수-학습에서 학습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문학 작품 감상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문학 작품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즉, 대상 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력, 탐구심 및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력 등의 창의성과 인성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는 학습 활동 중의 모둠별 토론 과정과 발표, 보충 및 심화학습 시

간의 평가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한편, 평가 요소는 '화자의 상황과 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화자의 태도와 특징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 '문학이 당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가?'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상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현장에서 현대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구안해 보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분명 교수-학습을 통해 대상 시에 대한 의미나 지식도 가르쳐주어야 하며, 또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감상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현대시 교수-학습 활동을 비롯한 시 교육에서의 교수-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시 교육 혹은 시에 대한 감상 능력에 의해 시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시에 대한 감상과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지닌 감수성 혹은 시 작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의한 시에 대한 감상이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5. 고등학교 현장의 현대시 교수-학습의 의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성취 기준은 다섯 가지이다. 그것은 '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2. 문학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한다.', '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4.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춘다.', '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이다. 이 속에서 1과 3의 성취 기준은 문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일반적 수행에 해당하며, 2의 성취 기준은 문학적 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4의 성취 기준은 문학적 수행에 해당하며, 5의 성취 기준은 문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문학적 지식'은 문학 양식이나 형식에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말

한다. 그리고 '문학적 수행'은 기능이나 전략 같은 방법적·원리적 지식들이 문학 수용이나 생산 과정에서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말하며, '문학적 활동'은 그 수행의 내용이나 동반 능력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문학 수용 및 생산 활동을 말하고, 일반적 수행은 국어과 내용의 실행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를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수행 활동들을 말한다. 만약 어떤 문학적 활동이 문학에 대한 문학에 대한 특정한 방법적·원리적 지식을 동반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교수-학습될 구체적인 내용을 갖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문학적 수행에 포함²³⁾시킨다.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현대시 교수-학습은 교사의 일방적인 시 해석에서 비롯하여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맞추어 시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목표에 벗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과정이 지닌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을 교수-학습하게 한다. 따라서 현대시 교수-학습은 2007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시 교수-학습 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성격 분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활동의 내용에는 '문학의 효용, 작가의 개성, 비평, 문학적 전통'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 학습 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가 너무 일방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 학습과 토론 등의 학습 활동을 통해 교수-학습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대시 교수-학습은 더 이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시 교수-학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학습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현대시를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작품들이 요약되어 이루어진 다이제스트식 출제 문제집의 테두리 속에서 시 영역을 감상하고, 이를 상상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정답만을 찾았을 뿐이다. 내용이 이렇

23) 윤여탁 외 3인 공저,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0, 100쪽.

다 보니, 시가 주는 미적 감상이나 자기주도적 시 해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현대시 교수-학습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고민은 바로 이 글처럼 고등학교 현장의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 이 글이 지닌 의의가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대시 교수-학습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학 교육을 비롯한 그 하위 영역인 현대시 교수-학습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교수-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인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이 있다.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은 그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교사 중심의 시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현대시 교육은 현대시가 지닌 다양한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적과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 글 역시 기술되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크게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현대시 교수-학습의 지향점, 현대시 교수-학습 활동 구안이다.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문제점은 교사적 측면, 감상의 주체 측면, 평가 영역에 따른 교수-학습의 내용 유형화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교사는 텍스트에 대한 지식이나 작품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감상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한 명의 독자로서 학습자들 앞에 나서는 것이며, 체험 과정에서 학습자들과 정서적·상상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한편,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교사는 크게 '왜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

칠까?',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수-학습은 결국 문학 교육 혹은 현대시 교육의 목표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의 결정체라고 일컬어지는 문학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그것을 가르치는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또 이런 배경이 일치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시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 시는 '가르칠 수 있고' 동시에 '유용 가능한' 내용을 지니면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최소한 학습자가 충분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가. 둘째, 교수-학습의 제재를 주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셋째, 우리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가. 넷째, 학습자가 시 작품의 감상과 재구성 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교사는 일방적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 작품을 개방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으로 사회화하며 창조로 변형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매개자란 문학 담당 교사가 작품을 분석, 종합하여 과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학생들이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현대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시 교육 혹은 시에 대한 감상 능력에 의해 시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시에 대한 감상과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지닌 감수성 혹은 시 작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의한 시에 대한 감상이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현대시 교수-학습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 될 때 궁극적으로 개정교육과정 문학 교육의 목표인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에 접근할 수 있다.

●핵심어: 현대시 교수-학습, 개정교육과정, 교사의 역할, 학습자 중심

<참고문헌>

- 강영기, 「학습자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 고찰」, 『영주어문』제15집, 영주어문학회, 2008, 221~232쪽.
- 권혁준, 『문학비평 이론의 시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7.
- 김은전 외 17인 공저,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월인, 2003.
- 김은전, 「시교육의 성격과 목표」, 『현대시교육론』, 시와 시학사, 1996.
- 김인환, 「시교육론」, 『문학교육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57~78쪽.
- 김중신,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 김창원, 『문학교육론-제도화와 탈제도화』, 한국문화사, 2011.
- 유성호, 『현대시 교육론』, 역락, 2006.
- 유성호, 『현대시 교육론』, 역락, 2006.
- 윤여탁 외 3인 공저,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0, 100~201쪽.
- 윤여탁, 『현대시 교육론-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태학사, 1996.
- 윤재열, 『문학 교육 방법론 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2001, 22쪽.
-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8.
- 차호일, 「시교육의 관점 변화 및 지향점」 『청람어문교육 3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 한철우 외 11인, 『비상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2』, 비상교육, 2011.

<Abstract>

A Study of Modern Poetry Teaching-Learning in High School

Kang Young-Gi

This study proposes to examine the problems of modern poetry teaching-learning currently practiced in high schools and develop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in the a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vised high school curriculum.

The study has three main points of discussion - the problems of modern poetry teaching-learning process, the educational goals we must pursue in the process and finally the exploration into better ways to improve the activities of modern poetry teaching-learning.

First of all, we see some problems because of teachers' stereotyped ways of teaching. Others may come from teacher-centered appreciation of poetry. And others may be produced by poetry teaching contents for related tests.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teachers should not show just their own knowledge of poetry text or their ways of appreciating poems. As a reader, they must should interact with students emotionally in reading poems and arrive at sharing as many values as possible.

Also, in the class of modern poetry, teachers try to think deeply about what they teach, why they teach something like poetry and how they teach something. That is because we must aim at literary education(the education of modern poetry) in our targeted teaching-learning process.

Why literature, a key element of culture, must be educated has something to do with cultural background of each literary work and society which produced it.

On the other hand, we must choose text poems which is usefully taught. In addition, they must imply community consciousness as well as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Specifically speaking, we ask ourselves these questions. Firstly, can learners have deep interest in poetry they are learning? Secondly, can main points in each teaching-learning process be easily grasped in related poem's theme? Thirdly, does the poem embody our life vividly? Finally, can learners recognize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after they appreciate and rearrange the poem?

Of course, teachers ought to avoid giving their knowledge one-sidedly to their especially in teaching modern poetry. Instead, teachers help their students understand literary works with open minds and get literary and creative insight into society.

When modern poetry teaching-learning in high school classrooms meets with the standards claimed in this study, ultimately it can approach the aims of literary education in recently revised curriculum, which says "Based upon the proper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wide experiences, students are able to read and create literary works. Furthermore they can arrive at self-realizatio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 Key Words: Morden Poetry Teaching - Learning, revision of curriculum, role of Teacher, Learner-centered

* 이 논문은 2011년 7월 18일 투고되었고, 8월 8일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